

靈樞·五亂에 對한 研究

李鎮浩·鄭憲瑩·千相默·金永河, 朴旻

: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診斷學教室

A Study on the *Oh Lan*(六微旨大論) of the *Young Chu*(靈樞)

For the healthy body, *Ying Qi*(營氣) and *Wei Qi*(衛氣) in *Jing Mai*(經脈) correspond to change of the four season and the Five elements at the natural world, and their operation are each other closely connected with regular order.

If it is violated this order, it brings about confusion of functional activities of *qi*(氣機) and it has a effect upon the five regions of the heart, the lungs, the intestines and stomach(腸胃), the limbs, the head so each differently symptoms come out, this is given a name to *wu luan*(五亂).

this volume are described symptoms and law of cure of *wu luan*(五亂) therefore this is so called *wu luan*(五亂).

this volume is divided three chapters according to contents, what can be acquired are summarized so follows:

1 chapter deals with systematic order of functional activities of *qi*(氣機)

2 chapter deals with what confusion of functional activities of *qi*(氣機) bring out disease of *wu luan*(五亂)

3 chapter deals with needle-steadying technique(刺法) of curing *wu luan*(五亂).

Key Words : 內經, 靈樞, 營衛, 清濁, 逆亂

접 수 : 2000년 4월 27일

채 택 : 2000년 11월 4일

교신저자 : 이진호·정현영·천상묵·김영하·박경,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진단학교실
(063-850-6847)

I. 序 論

『五亂』은 『黃帝鍼灸甲乙經』¹⁾에는 卷6 「陰陽清濁順治逆亂大論第4」에, 『太素』²⁾에는 卷12 「營衛氣行篇」에, 『類經』³⁾에는 卷20 針刺類27 「五亂之刺」에 編述되어 있다.

正常人에 있어 經脈 中の 營氣와 衛氣는 自然界의 四時와 五行의 變化에 相應하며, 그 活動은 서로 連繫되어 일정한 順序가 있다. 만약 이러한 順序에 違背되면 氣機의 逆亂이 발생되어 心, 肺, 腸胃, 四肢, 頭部 등의 다섯 部位에 影響을 주어 각기 다른 徵候가 나타나는 것을 五亂이라 하는데 本篇이 五亂의 症狀와 治法을 敍述하였으므로 篇名을 「五亂」이라 하였다⁴⁾. 本篇은 內容에 따라 3章으로 구분되는데 1章에서는 氣機의 順治에 대하여, 2章에서는 氣機가 逆亂되어 나타나는 五亂의 病證에 대하여, 3章에서는 五亂을 治療하는 刺法에 대하여 敍述하였다.

氣機가 逆亂된 것을 본문에서 「清濁相干」이라 하였고 「清濁相干」된 이유를 「清氣在陰 濁氣在陽 營氣順脈 衛氣逆行」이라 하였으니 氣機의 逆亂은 清氣와 濁氣의 失常과 營氣와 衛氣의 運行失調임을 의미한다.

營氣와 衛氣의 生成, 運行, 作用 등에 관하여서는 『靈樞』의 「營氣」, 「五十營」, 「衛氣行」, 「衛氣失常」, 「營衛生會」 등에서 論하고 있고, 水穀의 清濁의 運行에 관하여서는 「陰陽清濁」에서 論하고 있는데 氣機가 逆亂되는 原因은 이상의 篇들에서 論하고 있는 營氣와 衛氣 그리고 水穀清濁의 運行이 正常에서 벗어난 것이 氣機의 逆亂이라 할 수 있다.

『莊子·知北遊』에서 「人之生 氣之聚也 聚則爲生 散則爲死」라 하였고, 『管子·樞言』에서 「有氣則生 無氣則死 生者以其氣」라 하였고, 『素問·寶命全形論』에서는 「人以天地之氣生」이라 하였으며, 『素問·六節藏象論』에서는 「氣和而生」이라 하였으니 古人들은 人體의 根源은 氣이

며 氣의 運動과 變化에 의해서 生命活動이 發顯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氣의 運行 즉 氣機가 調和되면 健康을 維持하고, 紊亂하면 疾病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氣機의 調和와 紊亂은 健康과 疾病을 決定짓는 要因이며, 氣機가 紊亂하여 나타나는 五亂의 病症과 治法에 관하여 論하고 있는 本篇의 內容은 重要하다.

그러나 本文이 古文으로 되어 있고 理解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注釋을 參照해야만 본래의 뜻을 精確하게 理解할 수 있다. 이에 各家注를 比較考察하여 原文의 精確한 의미를 파악하고자 본 研究에 착수하였다.

II. 研究方法

본 편을 內容에 따라서 3章으로 나누었고, 原文과 各家의 注釋에는 읽고 理解하기 쉽도록 토를 달았으며, 校勘字句解 較註直譯意譯考察 및 結語의 順序로 研究하였다.

가. 原文은 『聚珍版』을 底本으로 하고, 章의 분류에는 任⁵⁾의 『黃帝內經章句索引』을 참고하였다.

나.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原則으로 하였다.

다. 校勘에 引用한 書目은 <표1>과 같다.

라. 較註는 原文에 대한 各注釋家의 見解가 다른 것 과 原文만으로는 理解가 잘 되지 않는 것을 위주로 하였고, <표2>의 8種 資料의 注釋 가운데서 內容이 유사한 것을 모았으며, 모든 注釋 가운데 가장 적합한 것을 國譯하고, 注釋의 原文들은 脚註로 하여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國譯한 것은 '●'로 표시하였다.

마. 直譯은 原文의 해석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바. 본 논문에 사용한 符號는 校勘에 '00', 字句解에 '(00)', 較註에 '00', 引用文獻에 '『』', 引用篇과 論文에 '『』'로 표시하였으며, 脚註는 1), 2), 3) ...의 일련번호로 표시하였다.

<표1> 校勘에 引用한 文獻 및 略稱

1) 黃甫謚 : 黃帝鍼灸甲乙經, 台聯國風出版社, 台北, 1975.

2) 楊上善 : 黃帝內經太素, 대성문화사, 서울, 1986.

3) 張介賓 : 類經, 대성문화사, 서울, 1982.

4) 南京中醫學院 中醫系 : 黃帝內經靈樞經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6. p 238.

5) 任應秋 :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書名	略稱	備考
1	明繡谷書林周日校刻本	周本	『黃帝內經靈樞語譯』에서 引用함.
2	日本舊抄本 北京中醫研究院藏	日抄本	
3	黃帝三部針灸甲乙經	甲乙	
4	黃帝內經太素	太素	

〈표2〉 研究資料

	註釋家	時代	書名	略稱
1	楊上善	隋	黃帝內經太素	楊
2	馬蒔	明(1580)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馬
3	張介賓	明(1624)	類經	景岳
4	張志聰	清(1672)	靈樞集注	張
5	黃元御	清(1756)	靈樞懸解	黃
6	丹波元簡	日(1808)	靈樞識	丹波
7	章楠	清(1825)	靈素節注類編	章楠
8	山東中醫研究所	1962	靈樞白話解	白話

III. 研究內容

第 1章. 氣機의 順治

【原文】

黃帝曰 經脈十二者는 別爲五行하고 分爲四時하니 何失而亂이며 何得而治오

岐伯이 曰 五行有序하고 四時有分하니 相順則¹⁾ 治하고 相逆則亂하니이다

黃帝曰 何謂相順²⁾이니이까

岐伯이 曰 經脈十二者³⁾는 以應十二月하고 十二月者는 分爲四時하고 四時者는 春夏秋冬에 其氣各異니 營衛相隨하야 陰陽已和⁴⁾하야 清濁不相干¹⁾하니 如是則順之⁵⁾而治니이다

【校勘】

1) 相順則治 相逆則亂 : 『甲乙』 卷6 第4에는 '相順而治 相逆而亂'으로 되어있다.

2) 何謂相順 : 『甲乙』 卷6 第4에는 '何謂相順而治'로 되어있다.

3) 經脈十二者 : 『甲乙』 卷6 第4에는 '經脈十二'로

되어있다.

4) 陰陽已和 : 『甲乙』 卷6 第4에는 '陰陽相合'으로 되어있다.

5) 如是則順之 : 『太素』 卷12, 『甲乙』 卷6 第4에는 '如是則順'으로 되어있다.

【直譯】

黃帝께서 물으시기를 12經脈은 五行으로 區別되고 四時로 區分되니 어떻게해서 昏亂스러우며 어떻게해서 調和를 이루어 다스려집니까?

岐伯이 對答하기를 五行에는 順序가 있고 四時에는 區分이 있으니 서로 順應하면 다스려지고 서로 拒逆하면 昏亂하게 됩니다.

黃帝께서 물으시기를 어떠한 것을 順應한다고 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12經脈은 十二月에 相應하고 十二月은 四時로 나뉘어지고 四時는 春夏秋冬에 氣가 각각 다르나 營氣와 衛氣가 서로 따라서 陰陽이 調和롭게 되어 清氣와 濁氣가 서로 侵犯하지 아니하니 이와 같은 것이 順應하여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第 2章. 五亂의 病證

【原文】

黃帝曰 何謂逆¹⁾而亂이니이까

岐伯이 曰 清氣在陰하고 濁氣在陽하며 營氣順脈²⁾하고 衛氣逆行하야 清濁相干하야 亂于胸中이면 是謂大惋¹⁾이라 故로 氣亂於心 則煩心密²⁾嘿³⁾ 俛首靜伏하며 亂於肺則俛⁴⁾仰喘喝하고 接手以呼⁴⁾하며 亂於腸胃則爲霍亂하며 亂于臂脛 則爲四厥하며 亂於頭則爲厥逆하고 頭重眩仆하니이다

【校勘】

1) 何謂逆而亂 : 『甲乙』 卷6 第4에는 '何謂相逆而亂'으로 되어있다.

2) 營氣順脈 : 『太素』 卷12에는 '營氣順行'으로 되어있다.

3) 嘿 : 『甲乙』 卷6 第4에는 '默'으로 되어있다.

4) 接手以呼 : 『甲乙』 卷6 第4에는 '按手以呼'로 되

어있다.

5) 頭重 : 『甲乙』卷6 第4에는 '頭痛'으로 되어있다.

【直譯】

黃帝께서 물으시기를 어떠한 것을 逆亂이라고 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淸氣가 陰에 있고 濁氣가 陽에 있으며 營氣는 脈을 順行하고 衛氣는 逆行하여 淸氣와 濁氣가 서로 犯하여 胸中으로 逆亂되면 이를 大惋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氣가 心으로 逆亂되면 가슴이 답답하며 沈默하며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엎드려 있으며, 肺로 逆亂되면 가슴을 구부렸다 폄다하면서 숨을 거칠게 쉬고 손을 가슴에 대고 숨을 쉬며, 腸胃로 逆亂되면 霍亂이 되며, 臂脛으로 逆亂되면 四肢厥冷하게 되며, 頭部로 逆亂되면 厥逆과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워 쓰러 집니다.

第 3章. 五亂의 刺法

【原文】

黃帝曰 五亂者는 刺之有道乎잇가

岐伯이 曰 有道以來하며 有道以去하니 審⁽¹⁾知其道를 是謂身寶니이다

黃帝曰 善다 願聞其道하노이다

岐伯이 曰 氣在於心者는 取⁽²⁾之手少陰心主之輸⁽¹⁾오 氣在於肺者⁽²⁾는 取之手太陰榮과 足少陰輸⁽³⁾오 氣在於腸胃者는 取之足太陽陽明하며 不下者⁽⁴⁾는 取之三里⁽⁵⁾오 氣在於頭者는 取之天柱大杼하며 不知⁽³⁾면 取足太陽榮輸⁽⁶⁾오 氣在於臂足은 取之에 先去血脈하고 後取其陽明少陽之榮輸⁽⁷⁾하니이다

黃帝曰 補瀉는 奈何오

岐伯이 曰 徐入徐出를 謂之導氣⁽⁸⁾오 補瀉無形를 謂之同精⁽⁹⁾이니 是非有餘不足也오 亂氣之相交⁽⁴⁾也니이다

黃帝曰 允⁽⁵⁾乎哉라 道여 明乎哉라 論⁽¹⁰⁾이여 請著⁽⁶⁾之玉板하야 命曰治亂也⁽¹¹⁾ 하소서

【校勘】

1) 手少陰心主之輸 : 『太素』卷12 「營衛氣行」에는 '手少陰經心主輸'로 되어있다.

2) 氣在於肺者 : 『太素』卷12 「營衛氣行」에는 '氣在於肺'로 되어있다.

3) 足少陰輸 : 『太素』卷12 「營衛氣行」에는 '手足少陰輸'로 되어있다.

4) 取之足太陽陽明 不下者 : 『太素』卷12 「營衛氣行」에는 '取之足太陽陽明下者'로 되어 있다.

5) 取之三里 : 『太素』卷12 「營衛氣行」에는 '取三里'로 되어있다.

6) 取足太陽榮輸 : 『甲乙』卷6 第4에는 '取足太陽之榮輸'로 되어있다.

7) 取之先去血脈 : 『太素』卷12 「營衛氣行」에는 '先去血脈'으로, 『甲乙』卷6 第4에는 '先去于血脈'으로 되어있다.

8) 謂之導氣 : 『甲乙』卷6第4에는 '是謂之導氣'로 되어있다.

9) 謂之同精 : 『日抄本』에는 '謂之固精'으로, 『太素』卷12 「營衛氣行」에는 '所以謂之同精'으로 되어있다.

10) 允乎哉道 明乎哉論 : 『周本』에는 '允乎哉論'으로 되어있다.

11) 命曰治亂也 : 『校釋』에서는 "顧氏의 『校記』에 '篇題는 五亂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 治亂이라 한 것은 반드시 錯誤가 있다'고 말하였다"고 하였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五亂을 刺針하는데 法道가 있습니까?

岐伯이 對答하기를 一定한 法道대로 오며 없애는데도 一定한 法道가 있으니 그 法道를 살피서 아는 것을 身寶라고 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습니다. 그 法道를 듣고 싶습니다.

岐伯이 對答하기를 逆亂된 氣가 心에 있는 사람은 手少陰心과 心主의 輸穴을 取하고, 逆亂된 氣가 肺에 있는 사람은 手太陰의 榮穴과 足少陰의 輸穴을 取하고, 逆亂된 氣가 腸胃에 있는 사람은 足太陽經과 足陽明經에서 取하고 낫지 않으면 三里穴을 取하며, 逆亂된 氣

가 頭部에 있는 사람은 天柱穴과 大杼穴을 取하고 낮지 않으면 足太陽經의 榮穴과 輸穴을 取하며, 逆亂된 氣가 臂足에 있는 것은 치료하는데 먼저 血脈에 鬱血된 것을 없앤 뒤에 足陽明과 足少陽의 榮穴과 輸穴을 取합니다.

黃帝께서 물으시기를 補瀉는 어떻게 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鍼을 서서히 刺入하고 서서히 拔鍼하는 것을 導氣라하고 補瀉하는데 일정한 틀이 없는 것을 同精이라하니 이는 有餘와 不足이 아니라 亂氣가 서로 섞인 것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理致가 믿을만하고 識論이 밝습니다! 請컨대 玉板에 새겨서 治亂이라 하십시오.

V. 考察 및 結語

1章은 本文에 “經脈十二者 以應十二月 十二月者 分爲四時 四時者 春夏秋冬 其氣各異 營衛相隨 陰陽已和 清濁不相干 如是則順之而治”라고 하였듯이 十二經脈이 五行과 四시에 나누어 配屬되어 五行의 理致와 四時の 氣候變化에 따라 相應하며 四時の 氣候變化에 順應함으로써 陰陽과 營衛가 調和를 이루어 清濁이 서로 犯하지 않으면 全身의 機能이 順調롭게 되어 健康하게 됨을 말하였다. 여기에서 經脈이 十二月과 四시에 相應한다는 것은 四時の 氣候變化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靈樞·經水』에서 “經脈十二者 外合於十二經水 而內屬於五臟六腑”라고 한 것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니 이는 十二經脈이 밖으로는 十二經수와, 안으로는 五臟六腑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뜻한다. 이 가운데 十二經수와 관련하여 『素問·離合眞邪論』에 “夫聖人之起度數 必應於天地 故天有宿度 地有經水 人有經脈 天地溫和則經水安靜 天寒地凍則經水凝泣 天暑地熱則經水沸溢 卒風暴起則經水波涌而隨起”라 하였으니 이는 氣候의 變化에 따라 經수가 변화하듯이 人體의 經脈 또한 氣候의 變化에 따라 이에 相應하는 變化가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12經脈은 五行의 相生順序로 變遷하는 四時와 四時の 變遷에 따른 氣候의 變化에 相應하는 影響을 받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綜合하면, 人體의 十二經脈은 氣血이

運行하는 通路로서 全身에 두루 분포하여 自然의 氣候環境과 五臟六腑와 매우 밀접한 聯關性을 가지며 따라서 五行의 理致에 따른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天人相應’의 觀點을 밝힌 것이다.

2章은 ‘清濁相干’으로 인하여 각 부분에 나타나는 病症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먼저 清濁의 의미를 보면 하나는 『靈樞·陰陽清濁』에서 “受穀者濁 受氣者清”이라고 論한 바와 같이 水穀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濁, 大氣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清이고, 다른 하나는 『靈樞·營衛生會』에서 “其清者爲營 濁者爲衛”라고 논하고 있는 바와 같이 營氣를 清, 衛氣를 濁으로 보는 것이다.

이들 清濁의 運行을 살펴보면, 『靈樞·陰陽清濁』에서의 清濁은 “受穀者濁 受氣者清 清者注陰 濁者注陽 濁而清者 上出於咽 清而濁者 則下行”이라 한 것처럼 清氣는 陰으로, 濁氣는 陽으로 運行하며, 濁氣 가운데 清한 것은 위로 咽으로 나오고 清氣 가운데 濁한 것은 下行하는 運行을 하므로써 清濁이 서로 섞이지 않게 된다.

또한 『靈樞·營衛生會』에서의 清濁은 營氣와 衛氣를 뜻하는데 營氣와 衛氣의 運行은 첫째 ‘營在脈中 衛在脈外’라 하였듯이 營氣와 衛氣의 運行部位가 다르기 때문에 正常인 狀況下에서는 清濁이 서로 뒤섞이지 않고, 둘째 營氣는 『靈樞·營氣』에서 論하고 있는 바와 같이 營氣는 手太陰에서부터 시작하여 手陽明, 足陽明, 足太陰, 手少陰, 手太陽, 足太陽, 足少陰, 手厥陰, 手少陽, 足少陽, 足厥陰을 거쳐 다시 手太陰으로 가는 과정을 하루에 50회 運行하는 반면에 衛氣는 『靈樞·衛氣行』에서 論하고 있는 바와 같이 平旦부터 目에서 나와 足太陽, 手太陽, 足少陽, 手少陽, 足陽明, 手陽明의 순서에 운행하여 다시 目으로 나오는 것으로 낮의 運行을 25회 마치고 밤이 되면 陽經에서 陰經으로 들어가는데 足少陰으로 들어가 相剋의 順序로 手少陰心, 手太陰肺, 足厥陰肝, 足太陰脾의 순서를 따라 다시 足少陰腎으로 가서 25회 運行을 하고 平旦이 되면 다시 目으로 나온다. 이와 같이 營氣와 衛氣의 運行이 각각 晝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營氣와 衛氣는 정상적인 狀況下에서 서로 뒤섞이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原文에서 “清氣在陰 濁氣在陽 營氣順脈 衛氣逆行 清濁相干”이라고 한 것을 보면 清濁相干의 原因을 두 가지로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清氣在陰 濁氣在陽”으로 인한 것과 다른 하나는 “營氣順脈 衛氣逆行”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사료된다.

먼저 “清氣在陰 濁氣在陽”으로 인한 清濁相干的 예를 보면, 앞에서 언급한 『靈樞·陰陽清濁』에서의 清濁의 運行이 正常을 잃게 되므로써 發生되는 것이고,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清陽出上竅 濁陰出下竅 清陽發腠理 濁陰走五藏 清陽實四肢 濁陰歸六府”라고 한 것도 正常의 인 狀況下에서는 清濁이 뒤섞이지 않는 理由인데 이러한 清濁의 運行이 正常을 벗어나게 되므로써 發生되는 “清氣在下則飧泄 濁氣在上則生臌脹”의 경우도 清濁相干的 한 例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營氣順脈 衛氣逆行”으로 인한 清濁相干은 앞에서 언급한 『靈樞·營衛生會』에서의 營氣와 衛氣의 운행이 正常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發生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清濁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서로 뒤섞이지 않으나 만약 어떠한 原因으로 清濁相干이 되면 十二經脈을 따라 身體의 各部分으로 病症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2章의 要點이라 할 수 있다.

3章은 五亂을 治療하는 刺法에 대한 내용으로 五亂을 治療하는 大法와 具體的인 穴名을 언급하고 있다.

“氣在於心者 取之手少陰心主之輸”에 대하여 楊 등은 手少陰과 手厥陰心主의 輸穴인 神門穴과 大陵穴로 보았으나, 張은 手少陰과 手太陰으로 보았다. 經脈의 相互關係는 表裏相傳과 上下相傳(接經)과 六經同氣相通(通經) 및 經別의 六合이 있으나 手少陰과 手太陰의 關係는 이러한 聯關性이 없기 때문에 楊 등의 見解가 妥當한 것으로 思料된다.

“氣在於肺者 取之手太陰榮 足少陰輸”의 ‘足少陰輸’가 『太素』卷12 「營衛氣行」에는 “手足少陰輸”로 되어 있는데 楊의 注釋 가운데 手少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手’字는 衍文인 것으로 생각된다.

“氣在於腸胃者 取之足太陽陽明 不下者 取之三里”가 『太素』卷12 「營衛氣行」에는 “氣在於腸胃者 取之足太陽陽明下者 取之三里”로 되어있어 楊은 陽明의 下輸로 보아 足三里穴의 位置를 설명한 것으로 보았으나 “氣在於心者 取之手少陰心主之輸”가 “氣在於肺者 取之手太陰榮足少陰輸”와 對句를 이루고 “氣在於頭者 取之天柱大杼 不知 取足太陽榮輸”와 “氣在於臂足 取之 先去血脈

後取其陽明少陽之榮輸”와 對句를 이루는 文章의 흐름으로 보아 “氣在於腸胃者 取之足太陽陽明 不下者 取之三里”는 아래의 “氣在於頭者 取之天柱大杼 不知 取足太陽榮輸”와 “氣在於臂足 取之 先去血脈 後取其陽明少陽之榮輸”와 對句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아래의 ‘不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治療效果가 나타나지 않는 뜻으로 보아 原文이 옳은 것으로 思料된다.

“徐入徐出”에 대하여 楊은 “補法은 徐入疾出하는 것이고, 瀉法은 疾入徐出하는 것이다”고 하여 徐疾補瀉로써 언급하였고, 景岳 등은 “鍼을 사용하여 補瀉를 하는 것은 모두 和緩한 것이 貴重하므로 마땅히 徐入徐出하여 導氣하여 復元시키는데 있을 뿐이다”고 하여 刺針과 拔鍼을 모두 서서히 한다고 하여 ‘徐入徐出’의 方法에 대하여 見解가 다르다. 有餘와 不足으로 인하여 實證과 虛證이 된 것이라면 刺針함에 있어 瀉法과 補法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楊의 견해가 타당하나, 아래의 “是非有餘不足也 亂氣之相交也”의 文句를 볼 때 有餘와 不足으로 인하여 發生된 것이 아니고 단지 亂氣가 서로 交錯된 것이기 때문에 補法과 瀉法은 큰 相關性이 없으며, 또한 “補瀉無形”의 文句를 보아도 徐疾補瀉는 깊은 聯關性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景岳 등의 見解가 타당하다고 思料된다.

이상과 같이 五亂을 治療하는 大法은 有餘와 不足으로 인하여 發生된 것이 아니고 亂氣가 交錯되어 發生된 것이므로 治療는 刺針과 拔鍼을 서서히 하여 이를 원래대로 復元시키는데 있다.

參考文獻

1.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86.
2. 楊上善 著·簫延平 按; 黃帝內經太素, 出版社·年度未詳.
3. 王水 撰^한靈樞經, 臺灣中華書局, 臺北, 1972.
4. 陳夢雷 等編;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醫經註釋^한,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8.
5. 馬 蒔·張志聰;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聯國風出版社, 臺北, 1981.

6. 張介賓：類經簡字本，成輔出版社，서울，1982.
7. 張介賓：類經正字本，大星文化社，서울，1982.
8. 黃元御：靈樞懸解，人民衛生出版社，北京，1990.
9. 丹波元簡：靈樞識，人民衛生出版社，北京，1984.
10. 章楠：靈素節注類編，浙江科學技術出版社原本·大星文化社影印，서울，1989.
11. 陳璧琥·鄭卓人：靈樞經白話解，人民衛生出版社，北京，1963.
12. 楊維傑：黃帝內經靈樞譯解，臺聯國風出版社，臺北，1976.
13. 郭籛春：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天津科學技術出版社，天津，1989.
14. 河北醫學院：靈樞經校釋，人民衛生出版社，北京，1982.
15. 光明中醫函授大學：黃帝內經講解，光明日報出版社，北京，1986.
16. 梁運通：黃帝內經類析，內蒙古人民日報社，呼和浩特，1986.
17. 任應秋：黃帝內經章句索引，人民衛生出版社，北京，1986.
18. 李今庸：新編黃帝內經綱目，上海科學技術出版社，上海，1988.
19. 皇甫謐：黃帝針灸甲乙經，宏業書局有限公司，臺北，1976.
20. 皇甫謐 著·山東中醫學院 校釋：針灸甲乙經校釋，人民衛生出版社，北京，1979.
21. 金明洙：『靈樞·營衛生會篇』에 대한 研究，원광대학교 대학원，익산，1998.
22. 申明鎬：素問·離合眞邪論에 대한 研究，원광대학교 대학원，익산，1994.
23. 안동림：莊子，현암사，서울，1993.
24. 이원섭：列子·管子 현암사，서울 1977.
- 知識出版社，香港，出版年度未詳.
2. 上海中醫學院中醫文獻研究所：中國醫籍字典，江西科學技術出版社，南昌，1989.
3. 謝觀：東洋醫學大辭典，高文社，서울，1980.
4. 李熙昇：국어대사전，民衆書林，서울，1986.
5. 張三植：大漢韓辭典，進賢書館，서울，1982.
6. 金赫濟·金星元：明文漢韓大字典，明文堂，서울，1984.
7. 김민수 외：국어대사전，금성출판사，서울，1991.
8. 金賢濟·洪元植：韓醫學辭典，成輔社，서울，1983.
9. 洪元植 等譯：韓醫學大辭典「醫史文獻篇」，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서울，1985.
10. 洪元植 等譯：韓醫學大辭典「基礎理論篇」，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서울，1988.
11. 高大民族文化研究所中國語大辭典編纂委員會：中韓辭典，高大民族文化研究所，서울，1989.
12. 武長春·張登本：內經詞典，인민위생출판사，북경.

參考辭典類

1. 中醫研究院·廣東中醫學院：中醫名詞述語辭典，